

## 第 65 回 1 級 : 聞きとり・書きとり記述式問題の解答

(以下の解答はあくまでも正答の一例です。これ以外の答えも採点基準に沿うものであれば、正答とします)

7 다음을 듣고 괄호 부분을 문맥에 맞게 번역하십시오.

<2 点×4 問>

1) ①(매력적인 볼우물)까지 어찌면 그리 ②(쓱 빼담았는지요.)

→ ①(魅力的なえくぼ)までどうしてそんなに②(そっくりなんでしょう。)

2) ①(피붙이라고는) 자네뿐인데 ②(속 좀 작작 썩이게나.)

→ ①(肉親と言えるのは)お前だけだから②(もうこれ以上心配ばかりかけないでくれ。)

3) 상반기 주류 업계는 ①(터줏대감 격인) 참이슬이 ②(견인한 썸이다.)

→ 上半期の酒類業界は①(古株の)チャミスルが②(牽引した形となった。)

4) 그렇게 ①(쌈쌈이가 헤퍼서) 대체 어떻게 ②(뒷감당하려고 그래.)

→ そんなに①(金遣いが荒くて)一体どうやって②(収拾するつもりなの?)

8 다음을 듣고 괄호 부분을 한글로 받아쓰십시오.

<2 点×4 問>

1) ①(번잡함에) 이골이 나서 ②(호젓한) 곳을 택한 거다.

2) 얼마나 ①(속앓이를) 했는지 ②(몰골이) 말이 아니네.

3) ①(어수룩한) 사람들에게 ②(웃돈을 얹어) 되파는 경우도 있다.

4) ①(꼭두새벽부터) 골목길의 ②(왁자지껄한) 소리에 잠이 깼다.

## 第 65 回 1 級 : 筆記記述式問題の解答

(以下の解答はあくまでも正答の一例です。これ以外の答えも採点基準に沿うものであれば、正答とします)

13 다음 문장을 문맥에 맞게 일본어로 번역하십시오.

<2 点×4 問>

- 1) 자꾸 빼지만 말고 명석 깔아 줄 때 해 보지 그래요.  
→ 避けてばかりいないで、チャンスが与えられた時にやってみたらどうですか。
- 2) 언제는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무슨 바람이 불어 행차하신 건지.  
→ いつもは知らんぷりしていたのに、どういう風の吹き回しでいらっしゃったのですか。
- 3) 엔간히들 좀 해. 나이가 몇인데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.  
→ いい加減にしなよ。いい歳だから自分でちゃんとやるでしょう。
- 4) 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인지 이실직고하십시오.  
→ いったい誰の指示を受けたのか白状しなさい。

14 다음 일본어를 문맥에 맞게 번역하십시오. 답은 하나만을 한글로 쓰십시오.

<2 点×4 問>

- 1) どうせ親バカと言われるなら、この際娘の自慢でもしなくちゃね。  
→ 기왕/어차피 팔불출/딸바보 소리 들을 바에야 내친 김에/하는 김에 딸 자랑이나 해야겠다.
- 2) 投げ売りされていたからいくつか買ったが、やはり安物買いの銭失いだった。  
→ 딸이 판매하길래 몇 개 샀는데 역시 싼 게 비지떡이었다.
- 3) 小柄で病弱だと思ったのに打たれ強い。  
→ 왜소해서 약골인 줄 알았더니 멧집이 좋다.
- 4) これという強み一つないことが、いつも肩身が狭い思いをさせられる。  
→ 이렇다 할 장점 하나 없는 것이 항상 주눅 들게 한다.